



CONGREGATIO PRO CLERICIS



SYNODUS EPISCOPORUM

바티칸, 2022년 3월 19일

문서번호 220083

사랑하는 사제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들이며, 여러분과 같은 사제들인 여기 저희 두 사람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올립니다. 저희가 잠깐 시간을 내주시길 청해도 될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주제 하나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교회는 시노드를 통해서 소집된다." 2021-2023년 시노드 준비 문서는 이 문구로 시작됩니다. 2년 동안 하느님 백성 전체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주제를 숙고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새로움은 열정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천년기에 '함께 걷는 것', 즉 시노달리타스를 실행하는 것은 교회의 일반적인 행동 방식이었습니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또한 교회 삶의 시노드적 면모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시노드적 면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께서는 "교회와 시노드는 동의어이다" (시편 149편 해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가 형제애를 시급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세상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백성 모두와 더불어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과 언어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시노드 여정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참된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 함께 걷고, 서로 경청하며, 서로의 생각과 계획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얼굴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거하시는 집, 형제적 관계로 활기를 얻는 집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환대하는 "집"입니다.

---

모든 사제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시노드를 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위험들이 있다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시노드를 하나의 공허한 슬로건으로 축소시키는 형식주의, 시노드를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인 숙고의 노력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지성주의,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게 우리가 그동안 행해오던 것이 보장하는 안전함에 우리를 고정시키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의 자세가 그와 같은 위험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들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 2,7 참조).

물론, 이 여정 앞에서 두려움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이미 사제들이 많은 사목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노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해야 할 일”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증가시키고자 여러분을 이 여정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 71항에서 말씀하시는 관상의 눈길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바라보라고 독려하려는 것입니다. 관상의 눈길로 여러분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이미 공동체에서 짹트고 있는 참여와 나눔의 수많은 예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구 시노드 절차의 목적은 “생활한 ‘시노달리타스’ 체험의 풍요로움을 모으는 것”(시노드 준비 문서31항)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희는 격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즉흥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일들에도 실상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서로 깊이 경청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타인이 받은 은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도우며, 함께 결정을 내린다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서는 이미 ‘시노달리타스’가 실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특유의 생활 방식이자 활동방식”(시노드 준비 문서 10항)인 시노드적 방식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깊이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와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례받은 이의 일반 사제직과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sensus fidei)을 많이 강조한다면, 인도자로서의 우리 역할과 직무 사제로서의 우리 고유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 이는 세례받은 모든 이의 근본적 동등성을 나날이 더 발견하고, 모든 신자가 교회의 여정과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복음화의 소임을 우리와 공유하는 형제, 자매들이 곁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 하느님 백성의 그와 같은 경험 안에서, 섬기고 성화하며 생기를 불어넣는 직무 사제직의 특수한 은사는 새로운 방식으로 부각될 수 있고 또 부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노드 여정 중에 계신 여러분께 아래의 세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1. 시노드의 여정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하는 것에 정초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최근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신 바

있습니다. "성경에 열중하도록 합시다. '말씀'이 우리 깊은 내면까지 파고 들어오시게 합시다. 그 말씀은 하느님의 새로움을 드려내 주고, 지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하느님 말씀 주일' 강론 중, 2022년 1월 23일).

말씀에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속을 걷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 우리의 성찰은 한낱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실행에 옮기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될 것이고 (마태 7,24-27 참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분의 빛과 그분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 서로에 대한 경청과 수용이 시노드 여정의 고유한 특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깊은 대화와 진정한 만남은 이미 그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 계획과 잠재력이 지니고 있는 우리 공동체는 너무도 자주 개인들과 단체들이 개인주의와 혼자서 다 알고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의 위험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목자로서 우리는 사랑으로 여러 관계를 치유하고, 특히 교회 안에 형제적 관계를 짖어 놓는 상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의 가족, 함께 걷는 하나의 백성, 한 아버지의 자녀들, 즉 모두 서로 형제라는 것을 느끼는 기쁨을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제들 사이의 형제애가 모든 형제애의 모범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시노드의 여정이 단순히 자기 내면을 되돌아보는 것으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와 만남을 추진하는 것이 되도록 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복음의 기쁨』에서 인류가 가진 상처들로 인하여 자기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가난하고 변방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섬기며 여정의 길을 걷는 교회에 대한 꿈을 피력하셨습니다. 말씀의 나침반과 사랑의 불을 가지고 형제를 만나러 "밖으로 나아가는" 이 역동성은 성부의 위대한 근본 계획을 실현시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한 17,21). 가장 최근에 발표하신 회칙인 『모든 형제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사명의 성취를 위해 타 그리스도교 종파의 형제 자매들, 타 종교 신자들 그리고 선한 뜻을 지닌 모든 이와 더불어 노력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렇게 보편적 형제애와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을 섬기는 우리 사제는 이 형제애와 사랑이 모호하거나 막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사는 곳에 참으로 구체적으로 구현하도록 하는 각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사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 우선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상황에 따른 필요성과 가능성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들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노달리타스"는 참으로 삼천년기의 교회를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향으로 여정을 시작하면서 의문과 고난과 불안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애와 복음적 삶의 열매들 안에서 백배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첫 시노드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14장 참조). 그 내막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이 초기 교회에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이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편지를 시노드 준비 문서의 두 구절을 인용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이 두 구절은 마치 휴대용 지침서(vademecum)처럼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를 동반해줄 것입니다.

"부여받은 사명의 고귀함에 맞갖게, 교회와 그 제도들의 다른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힘은 대체로 모든 이가 참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경청, 대화, 공동 식별의 과정을 시작하는 선택에 달려습니다." (9항).

"시노드의 목적을 기억합시다. 이 자문 과정은 문현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노드 자문은 꿈을 짹트게 하고, 예언과 비전(vision)을 불러일으키며, 희망을 꽂피게 하고, 신뢰를 촉진하며, 상처를 싸매 주고, 관계를 건설하며, 희망의 여명을 다시 깨어나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문 과정의 목적은 또한 정신을 밝히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우리 손에 다시 힘을 불어 넣어주는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32항)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의 시노드 여정이 기쁨의 여정,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여정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여러분을 매우 가깝게 여기시고 아끼시며 감사해하시고, 또 여러분을 항상 품고 계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인사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좋은 여행길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맡겨드리며, 주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다해 인사드립니다.



마리오 그렉 추기경

주교 시노드 사무 총장

+ 유홍식 라자로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

대전교구 원로 주교, 성직자성 장관